

## 1.글로벌 채권

\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, 투자자들이 유럽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주목한 가운데 혼조세

\*국채가, 유럽 지역의 정치적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이날 낮은 거래량과 시장 조기마감으로 혼조세

- 이날 시장 거래량은 평균 대비 40~50% 낮은 수준을 나타냄

\* 다음 달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&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

-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, 개헌 국민투표가 가결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라 최근 시장 불확실성을 높임

### [미국]

2y 1.12% (-0.6bp)

5y 1.84% (+0.3bp)

10y 2.36% (+0.7bp)

30y 3.00% (-1.6bp)

### [기타 10Y물]

영국 1.41% (-1.8bp)

독일 0.24% (-1.8bp)

프랑스 0.77% (-0.6bp)

이탈리아 2.08% (-4.3bp)

스페인 1.57% (-1.4bp)

그리스 6.81% (+1.6bp)

## 2.글로벌 증시

\* <뉴욕 마감>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조기 폐장한 가운데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며 일제히 사상 최고치 기록

\*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와 통신 업종이 각각 1.43%와 1.05% 오르며 상승세 주도

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소비재 업종도 강세

\*美 서비스업 경기,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

- 11월 서비스업 PMI 잠정치, 예상치(54.8) 근소하게 밑도는 54.7을 기록... 직전월 확정치인 54.8 소폭 하회

\* 예상과 달리 감소세로 돌아선 미 10월 도매재고

- 10월 도매재고 전월대비 0.4% 감소... 0.2% 증가할 것이란 시장 전망을 뒤집은 결과

\* 국제유가,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28일(현지시간) 열리는 OPEC 회원국과 비OPEC 산유국 회동에 불참할 것이란 전망에 4%대 급락

- 사우디, OPEC 회원국들이 감산에 합의한 다음 비OPEC 산유국과 회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참 통보 <로이터>

\* <유럽 마감> 국제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상승세 동참... 英 3분기 GDP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 개선

- 영국 3분기 GDP, 지난달에 나온 예비치와 시장 전망에도 부합하는 수준인 0.5% 기록...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신호 재확인

\* <상하이 마감> 당국 규제 우려에 오전장 하락세를 보였다가 반등

- 선전거래소, 전날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무상 증자 등 주주 친화적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 밝힘

- 당국의 입장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분석 & 막판 매수세에 반등

\* <도쿄 마감>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엔저 현상이 심화하자 증시는 고공 행진... 닛케이 1월 4일 이후 최고치

DOW30	19152.14	(+0.36%)
NASDAQ	5398.92	(+0.34%)
S&P500	2213.35	(+0.39%)
NIKKEI225	18381.22	(+0.26%)
SHANGHAI	3261.94	(+0.62%)
FTSE100	6840.75	(+0.17%)
DAX30	10699.27	(+0.09%)
CAC40	4550.27	(+0.17%)

### 3.글로벌 환시

\* 달러화, '추수감사절' 연휴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강세에 따른 이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 하락

유로/달러	1.0588	(+0.0036)
유로/엔	119.72	(+0.12)
달러/엔	113.06	(-2.9)
달러/위안	6.9168	(+0.0083)
파운드/달러	1.2466	(+0.0015)
NDF	1175.50 / 1176.50원...1.50원 하락	

### 4.글로벌 상품

\* <국제 유가> OPEC 감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제히 급락

\* <국제 금값> 위험자산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라 하락

WTI 46.06 (-4.0%)

COMEX금 1179.50 (-0.8%)

#### 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1974.46 (+0.16%)

코스닥 597.82 (+0.87%)

원/달러 1177.40 (-2.70)

KTB 109.05 (+0.02)

LKTB 124.93 (+0.05)

#### 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\* 국고채 금리, 장중 상승과 하락의 왕복달리기 끝에 혼조세 마감. 초장기물은 정부의 발행물량 축소에 강세를 보임. 여기에 국민연금이 내주 자금을 집행한다는 설이 돌면서 강세폭을 키움.

CD(91d) 1.4800% (+0.02bp)

##### [국고채]

1y 1.7230% (+1.10bp)

3y 1.8230% (-0.70bp)

5y 1.9670% (+0.20bp)

10y 2.1850% (-1.00bp)

20y 2.2500% (-2.00bp)

30y 2.2650% (-2.00bp)

50y 2.2520% (-2.00bp)

##### [통안채]

1y 1.7240% (+1.10bp)

2y 1.8250% (-0.50bp)

#### 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 -16.15bp (-0.35bp)

2Y -22.25bp (+1.00bp)

3Y -17.55bp (+0.95bp)  
 5Y -26.70bp (-1.20bp)  
 10Y -35.00bp (-1.25bp)

8. IRS/CRS 동향

\* IRS, 단기물 부진에 혼조세로 마감. 커브 플래트닝. 장 초반 단기물 약세와 CD금리 상승으로 단기금리 상승. 하지만, 현물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기물 금리 하락.

\* CRS, 장 중 변동 폭이 컸지만 대부분 구간이 상승하며 마감.

\*IRS 금리

1Y 1.5625% (+0.75bp)  
 2Y 1.6025% (+0.50bp)  
 3Y 1.6475% (+0.25bp)  
 5Y 1.7000% (-1.00bp)  
 7Y 1.7600% (-1.75bp)  
 10Y 1.8350% (-2.25bp)

1\*2Y 4.00 (-0.25bp)  
 2\*3Y 4.50 (-0.25bp)  
 2\*5Y 9.75 (-1.50bp)  
 3\*5Y 5.25 (-1.25bp)  
 5\*7Y 6.00 (-0.75bp)  
 5\*10Y 13.50 (-1.25bp)

\*CRS 금리

1Y 1.0450% ( 0.00bp)  
 2Y 1.0900% (+3.50bp)  
 3Y 1.1200% (+4.00bp)  
 5Y 1.1500% (+4.50bp)  
 7Y 1.1650% (+3.50bp)  
 10Y 1.1750% (+3.0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\* 11월 미국의 서비스업 활동이 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 12개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

- 서비스업 PMI 예비치, 전월 54.8 대비 소폭 하락한 54.7을 기록

\* 中 위안화의 최근 절하 추세, 달러 강세를 반영한 것으로 시장환율을 반영하겠다는 당국의 개혁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 <중국일보>

\* 유럽의 각종 투표와 선거, 미국 대선에 따른 정책 변화 등으로 유로 지역 어려움 직면 <ECB 금융 안정 평가 보고서>

-미국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, 무역 전쟁이 유로 지역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

-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이 유로존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채권시장에서 추가적인 자산가격 조정이 이뤄질 리스크만큼은 여전히 크다

\* 홍콩거래소, 선전증시와 홍콩증시를 연계하는 선강통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 공식 발표

- 선강통 시행으로 홍콩 투자자들은 선전 증시에 상장된 880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홍콩 증시에 상장된 417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됨

[국내]

\* 12월 국고채·통안채 발행 축소...채권시장 "안정화 기대"

\* 채권시장 '한은바라기'...리스크관리 못한 반성도

- 한은이 이번주 단순매입에 나섰지만, 단기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한은이 단기물을 대상으로 또다시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옴

- 수년 동안 금리 하락기가 이어지면서 관성에 젖어 포지션을 크게 늘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

\* 뚜렷해진 증시 거래연장 '비효율성'..."누굴 위한 건가"

\* 유일호 "산업·기업 구조조정, 선택지 없는 과제"

\* 장병화 한은 부총재 "채권시장 망가지도록 두진 않을 것"

\* 내년 금통위 연 8회만 열린다..."데이터가 더 중요해졌다"

\* 기재부, 국고채 발행 계획대비 10조 줄여...변동성 대응

- 다음달 국고채 4조7천억원 규모로 발행...이번달보다 1조4천500억원 줄어

- 하반기에 꾸준히 축소발행 기조를 유지하고 다음달 발행 규모를 크게 줄인 것

\*\*주간 예정 지표\*\*

11월 28일

[드라기 유럽중앙은행(ECB) 총재 유럽의회 참석]

미국-11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(이전:-1.5)

유로존-11월 소비자신뢰지수 (예상:-6.0, 이전:-8.0)

11월 29일

[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 연설]

[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연설]

[제롬 파월 연준 이사 연설]

[영란은행(BOE) 실질금리]

미국-3분기 GDP (예상:3.0%, 이전:2.9%)

-9월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지수(YoY) (예상:5.2%, 이전:5.1%)

-11월 소비자신뢰지수 (예상:100.0, 이전:98.6)

일본-10월 소매판매(YoY) (예상:-1.2%, 이전:-1.9%)

-10월 가계지출(MoM) (예상:0.1%, 이전:2.8%)

-10월 실업률 (예상:3.0%, 이전:3.0%)

독일-11월 CPI(MoM) (예상:0.1%, 이전:0.2%)

11월 30일

[연준 베이지북]

[로버트 카플란 달러스 연은 총재 연설]

[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]

[뉴욕 연은 가계 부채·신용보고서]

한국-10월 산업생산(YoY) (이전:-2.0%) / 산업생산(MoM) (이전:0.3%)

일본-10월 산업생산(MoM) (예상:-0.1%, 이전:0.6%)

유로존-11월 CPI(YoY) (예상:0.6%, 이전:0.5%)

영국-1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(예상:-3, 이전:-3)

독일-11월 실업률 (예상:6.0%, 이전:6.0%)

미국-11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변화 (예상:165K, 이전:147K)

-10월 개인지출(MoM) (예상:0.5%, 이전:0.5%)

-10월 근원 PCE 물가지수(YoY) (이전:1.7%) / (MoM) (예상:0.1%, 이전:0.1%)

-11월 시카고 PMI (예상:52.2, 이전:50.6)

-10월 잠정주택판매(MoM) (예상:0.3%, 이전:1.5%)

-원유재고 (이전:-1.255M)

12월 1일

[로버트 카플란 달러스 연은 총재 연설]

[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]

- 한국-11월 CPI(YoY) (이전:1.3%)
  - 11월 수출(YoY) (이전:-3.2%) / 11월 수입(YoY) (이전:-4.8%)
  - 11월 무역수지 (이전:6.97B)
- 중국-11월 제조업 PMI (예상:51.0, 이전:51.2)
  - 11월 비제조업 PMI (이전:54.0)
  - 11월 Caixin 제조업 PMI (예상:50.9, 이전:51.2)
- 미국-실업보험청구자수 (예상:253K, 이전:251K)
  - 11월 제조업 PMI (예상:53.9, 이전:53.9)
  - 10월 건설지출(MoM) (예상:0.5%, 이전:-0.4%)
  - 11월 ISM 제조업고용 (이전:52.9)
  - 11월 ISM 제조업 PMI (예상:52.2, 이전:51.9)
- 독일-11월 제조업 PMI (예상:54.4, 이전:54.4)
- 영국-11월 제조업 PMI (예상:54.5, 이전:54.3)
- 유로존-11월 제조업 PMI (예상:53.7, 이전:53.7)
  - 10월 실업률 (예상:10.0%, 이전:10.0%)

12월 2일

[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연설]

[대니얼 타룰로 연준 이사 연설]

- 한국-3분기 GDP(QoQ) (이전:0.7%) / (YoY) (이전:2.7%)
- 영국-11월 건설 PMI (예상:52.3, 이전:52.6)
- 유로존-10월 PPI(YoY) (예상:-1.0%, 이전:-1.5%)
- 미국-11월 비농업고용 (예상:175K, 이전:161K)
  - 11월 실업률 (예상:4.9%, 이전:4.9%)